

광주 자전거 인프라 대폭 확충된다

시, 천변 전용도로 16.4km 정비...평동산단 등 생활형 도로 4.3km 신설 지하철 역사 주변 보관대·주차시설 확충...자전거 전용차로 설치도

광주시가 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광주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대폭 신설하고, 기존 자전거도로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전거 전용교량 완공을 비롯한 자전거 인프라를 정비한다.

광주지역 자전거도로는 총 661km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508km는 기존 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다. 이 도로는 대부분 폭이 좁아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높는데다 노후 노면이 많아 자전거 이용자의 운행이 불편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 전 구간 16.4km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노후·파손된 구간이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선별해 일제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시설도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시민들이 건의한 평동산단 인근 생활형 자전거 전용도로 2.8km를 신설하고, 앞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포함해 상무역-시청간 생활형 자전거 전용도로 1.5km도 구축한다.

현재 공사 중인 어등대교 인근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교량(길이 360m, 폭 5.5m)도 올 상반기내 완공 예정이다. 전용교량이 들어서면 광산구 월곡지구와 서구 상무지구가 직선으로 연결돼 영산강과 광주천 자전거도로 이용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병행해 주요 거점 지하철역사 주변 자전거 보관대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연계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5개 자치구에선 도심 노후 자전거도로 10km를 정비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한 뒤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Together 희망자전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자전거도로 거점터미널 8곳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 5곳도 운영한다. 시는 이 밖에도 무인 공유자전거인 '타랑개' 200대를 상무지구 무인대여소 52곳에 배치했으며, 수요조사를 거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남진 광주시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함께 자전거 인프라를 정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수양버들 사이로 완연한 봄
완연한 봄날씨를 보던 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 주변에 돌아온 수양버들 사이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동차 기술 배워 인생 2막 출발”

광주 남구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광주 남구가 신중년 및 중장년의 인생 2막 출발을 위해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자동차 검사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과 경력을 갖춘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송원대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신중년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4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송원대에서 4개월간 자동차 검사 관련 기술을 습득한 뒤, 송원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 검사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50~64세 사이의

미취업자 또는 중·장년 미취업자이다. 또 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하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응시 가능자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2년 이상 경험한 이들은 우대 선발한다. 교육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하며, 교육 수당으로 최대 80만원이 지급된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송원대 홈페이지(www.songwon.a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송원대 산학협력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pmj1119@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월’을 떠올리며

힘내세요! 미안마

오월어머니집, 오늘 연대 기자회견...전남대 5·18연구소 성명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간직한 ‘오월어머니’들이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나섰다.

오월어머니집은 1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에서 미안마 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오월어머니들은 미안마 희생자들을 한마음으로 애도하는 뜻에서 소식을 갖춰 입고 미안마 군부의 학살 만행을 규탄하고, 미안마 국민들의 저항을 지지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원장갑을 끼고 미안마 시위대가 사용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평화적인 저항 운동에 대한 지지도 표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교류해 온 1988년 미안마 ‘8888항쟁’ 희생자 유족모임인 ‘88민주어머니회’에 오월어머니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도 전달한다.

어머니들은 “미안마 사태는 1980년 광주에서 자행된 전두환 쿠데타군의 민간인 학살과 너무 닮아 40년 전의 아픔과 공포 속에 빠져들며 몸서리치게 만든다”면서 “미안마 군부의 잔혹한 탄압과 살육이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안마 학살 중지와 민주회복을 위해 UN(유엔)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연대도 호소할 예정이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 때 많은 외국인의 도움으로 광주 상황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미안마를 도와야 할 때”라면서 “작지만 어머니들의 참지돈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했다. 미안마 민주화를 위해 죽어간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미안마의 민주투쟁에 함께 하려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9일 미안마 군부의 시위 군중에 대한 학살 중단과 정권 민간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1일 미안마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래, 군부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전 세계인의 공분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5·18은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군부가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미안마의 현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5·18연구소는 또 “미안마 군부는 미안마 민중들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 구급된 정부인사와 시민을 즉각 석방할 것, 쿠데타를 철회하고 민간정부에게 정권을 즉각 이양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둘러봐요! 사적지

5·18기록관, 16~6월 30일 ‘오월엔금남로’ 무료 진행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관 및 금남로 일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오월엔금남로’를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오월엔금남로’는 5·18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직접 느끼고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해설사의 설명과 오월항쟁의 역사적 배경 및 전개과정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답사프로그램은 시간별로 A코스(1시간), B코스(2시간)로 나눠 신청자의 일정에 따라 운영

되며, A코스는 5·18기록관-금남로-전일빌딩-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B코스는 5·18기록관-故홍남순 변호사 자택-광주MBC 옛터-녹두서점 옛터-광주YWCA 옛터-전일빌딩으로 1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10일부터 5·18기록관에 방문이나 전화(062-613-8209)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5·18기록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래해요! 동심으로

광주 교원단체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 26일까지 접수

광주실천교사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등 광주지역 교원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행사로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정서를 시와 노래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시작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링크(https://han.gl/rrkkM)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학급 및 동아리 등 단체로 참가한 팀은 소정의 참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5쇄 판매중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인기리 판매중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떠난 한중일미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최신간 양장